

## 부산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중·노년층의 성인식, 성생활 및 성활동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학교실

박현준 · 윤창진 · 안재현 · 박남철\*

###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Activity of People Older than 50 Years: Results from a Community-Based Study in Busan, Korea

Hyun Jun Park, Chang Jin Yun, Jae Hyun Ahn and Nam Cheol Park\*

Department of Ur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usan, Korea

Even though interest in sexual life increases with quality of life and increases in the average life span, research is lacking on this aspect of sexual life. Therefore, we studied aspects of sexual life among aging men and women living in somewhat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Busan, a metropolitan city and the largest Korean harbor. A questionnaire study was conducted in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248 men and 66 women aged 50 years and older (average age: men, 62.1; women, 60.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3 questions on sexual pattern, sexual activities, sexual methods, and sexual satisfaction. We found that 38.7% of men and 54.5% of women were satisfied with their sexual life, whereas dissatisfaction with sexual life was reported by 16.9% of men and 4.5% of women. A total of 66.1% of the men and all of the women reported that they had sexual intercourse less than 2 times a month. Vaginal intercourse was the most common method of sexual intercourse. In a few cases, both men and women reported petting of the whole body, sexual foreplay, and kissing. The most common sexual problems were erectile dysfunction in men and loss of libido in women. Men and women older than 50 years in the Busan area continue to show sexual activity.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sample that was sexually active declined with age in both men and women.

**Key Words:** Sexual behavior; Aging; Questionnaires

## 서 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sup>1</sup>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7월 전체 인구의 10.3%인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정상적인 성기능을 유지

게재결정: 2009년 11월 25일

\*교신저자: 박남철, 602-730,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 Phone: 051-240-7347, FAX: 051-247-5443, E-mail: joon501@pusan.ac.kr

하기 위한 많은 의학적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을 통한 노화와 관련된 성기능 변화, 성기능 장애의 치료 및 성기능 장애의 유병률 등에 관한 역학조사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젊은 층과는 달리 노인의 성기능에 대한 연구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성기능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 성행동 양식 및 성적 활동성과 성상대자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생활에 대한 태도나 성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도의 차이도 젊은 층의 그것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들은 부산광역시 거주 50세 이상 중·노년층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인식, 성행동 양식 및 성적 활동성을 조사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15개구 및 1개 군별로 각 1곳을 무작위로 선별한 뒤 2명의 전공의와 1명의 전문의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노인 중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남성 248명과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대상군의 특성

대상군의 연령은 남성이 평균 62.1세(50~82세)였고, 여성은 평균 60.6세(50~79세)였다. 연령 분포는 남성은 50, 60, 70 및 80대가 각각 108명(43.5%), 84명(33.9%), 54명(19.4%) 및 2명(0.8%) 순이었고, 여성은 50, 60 및 70대가 각각 30명(45.6%), 33명(50%) 및 3명(4.5%) 순이었다.

### 3. 조사 방법

설문지는 부산대학교병원 남성의학연구소에서 제작한 총 13개 항목의 문항으로 구성된 PNUH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xual Function Inventory 설문지를 이용하였다(Appendix). 본 연구는 2004년도 1차 조사 연구에 이은 2차 연구에 해당하며 5년마다 시행하는 일련의 연구로 진행되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을 위해 5년 전 연구와 설문지 내용은 동일하게 하였다.<sup>3</sup> 설문에는 일상생활의 만족도 및 불만족 원인, 성상대자의 유무 및 연령, 성적 활동성에 대한 자기평가, 성행위 양상, 성적 만족도, 성생활 비중, 성기능 장애와 해결법을 포함하였다.

## 4. 통계 처리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연령대와 성별 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 또는 one 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결 과

**1) 일상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경우가 남녀 각각 96명(38.7%) 및 36명(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80명(32.3%) 및 21명(31.8%), 약간 불만족의 경우는 40명(16.1%) 및 9명(13.6%),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20명(8.1%) 및 6명(9.1%) 그리고 매우 불만족인 경우가 12명(4.8%) 및 0명(0%) 순이었으며 남녀모두에서 약 반수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남녀 각각 198명(79.8%) 및 54명(81.8%)이 답을 하였으며, 건강 문제가 남녀 각각 86명(34.7%) 및 21명(31.8%), 경제적 문제가 72명(29.0%) 및 24명(36.3%), 자식 문제가 30명(12.1%) 및 9명(13.6%), 직장 문제가 16명(6.5%) 및 0명(0%), 성생활 문제가 42명(16.9%) 및 3명(4.5%),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들이 6명(2.4%) 및 0명(0%)였다. 불만족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남성에서는 자신의 건강, 여성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남녀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B). 성생활에 대한 불만은 남성에서 16.9%, 여성에서는 4.5%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p < 0.05$ ).

**2) 성상대자 유무 및 연령:** 성상대자의 유무는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으며 이중 남자 198명(79.8%), 여자 45명(68.2%)에서 성상대자가 있었다. 성상대자의 연령은 남녀 각각 198명(79.8%) 및 45명(68.2%)이 답하여 남성에서는 50대가 84명(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0대가 66명(26.6%), 40대가 24명(9.7%), 70대가 18명(7.3%), 30대가 4명(1.6%) 순이었다. 여성에서는 60대가 24명(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대가 12명(18.2%), 70대가 6명(9.1%) 그리고 40대가 3명(4.5%) 순이었다.

**3) 성적 활동성에 대한 자기평가 :** 성적 활동성에 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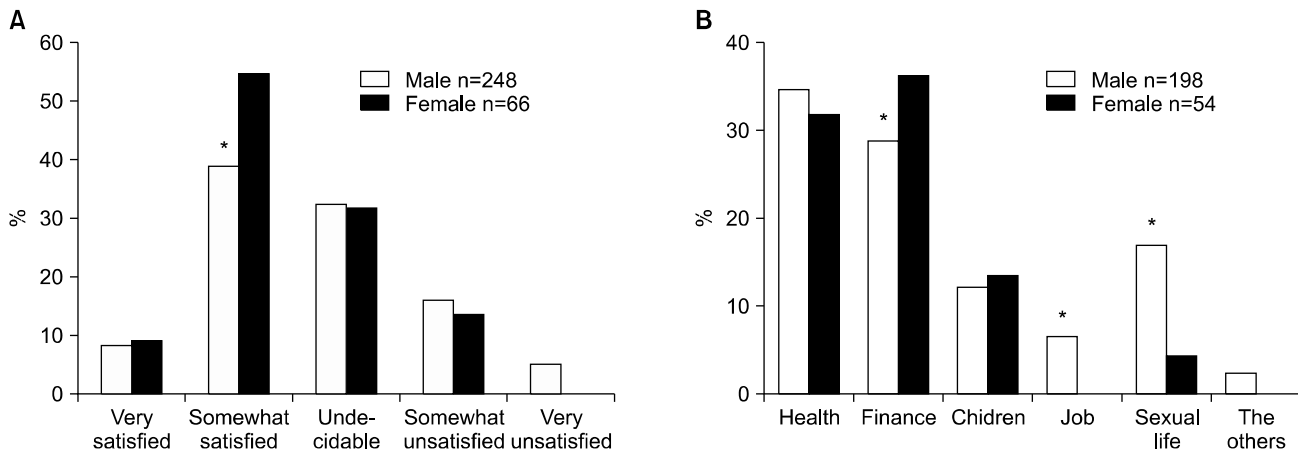


Fig. 1. Satisfaction and underlying problems related to general well-being, (A) Satisfaction, (B) Underlying problems related to general well-being. \* $p < 0.05$  vs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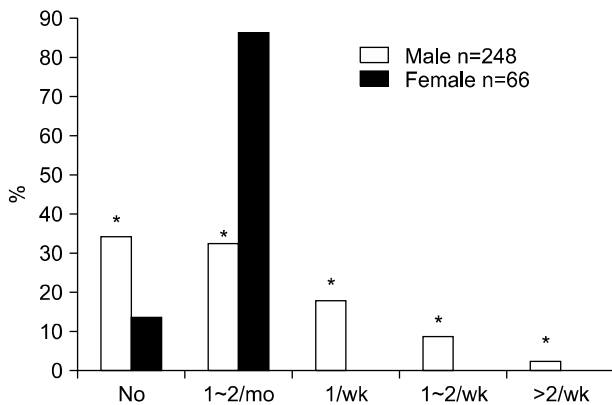


Fig. 2.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 $p < 0.05$  vs female.

가 평가는 248명(100%) 및 66명(100%)가 답하였으며 이중 남성 84례(33.1%), 여성 9례(13.6%)에서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자가 평가하여 남성보다 여성에서 성적 활동성에 대한 자가 평가 기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p < 0.05$ ).

4) 성교 빈도 : 성교 빈도는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으며 지난 한 달 간 성교빈도는 관계를 못 가졌다가 84례(33.9%) 및 9례(13.6%), 1달에 1~2번이 80례(32.3%) 및 57례(86.4%), 1주일에 한번이 44례(17.7%) 및 0례(0%), 1주일에 1~2번이 22례(8.9%) 및 0례(0%), 1주일에 3번 이상이 6례(2.4%) 및 0례(0%)로 나타났다(Fig. 2). 성행위를 갖지 못한 원인은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으며 남성에서는 나 자신의 문제가 74례(29.8%), 여성에서는 자신의 건강 및 성상 대자의 건강이 각각 12례(18.2%)로 가장 높았다.

5) 성행위 양상 : 성관계 제의는 본인이 먼저 제의하는 경우

가 남녀 각각 146례(58.9%) 및 3례(4.5%)에서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제의한 것은 각각 42례(16.9%) 및 9례(13.6%)로 조사되어 성관계의 시작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하는 성행위는 남녀 각각 234명(94.4%) 및 48명(72.7%)이 응답하였으며 질삽입 성교가 남녀 각각 180례(72.6%) 및 39례(59.1%)로 가장 선호하는 성행위였으며, 다음으로 전신애무는 각각 48례(19.4%) 및 3례(4.5%), 키스는 각각 46례(18.5%) 및 3례(4.5%), 성기 애무가 14례(5.6%) 및 3례(4.5%), 구강성교는 14례(5.6%) 및 0례(0%), 자위행위가 14례(5.6%) 및 0례(0%) 그리고 항문성교는 각각 0례(0%) 및 0례(0%)로 조사되었다(Fig. 3A). 실제로 경험한 성행위는 남녀 각각 162명(65.3%) 및 15명(22.7%)이 답하였으며 질삽입 성교가 남녀 각각 120례(48.4%) 및 9례(1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키스가 각각 54례(21.8%) 및 3례(4.5%), 전신애무가 각각 44례(17.7%) 및 0례(0%), 자위행위는 각각 32례(12.9%) 및 3례(4.5%), 구강성교는 14례(5.6%) 및 0례(0%), 성기 애무는 각각 12례(4.8%) 및 0례(0%), 항문성교가 4례(1.6%) 및 0례(0%)의 순이었다(Fig. 3B). 절정감을 느낀 성행위는 남녀가 각각 152명(61.3%) 및 12명(18.2%)이 답하였으며 질삽입 성교가 남녀 각각 104례(41.9%) 및 6례(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삽입 성교 다음으로는 남성에서는 자위행위 32례(12.9%), 키스 30례(12.1%), 전신애무 18례(7.3%), 구강성교 18례(7.3%), 성기애무 18례(7.3%) 성적인 꿈이나 환상 12례(4.8%)의 순이었으며, 여성에서는 키스 6례(9.1%), 자위행위 3례(4.5%)의 순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다( $p <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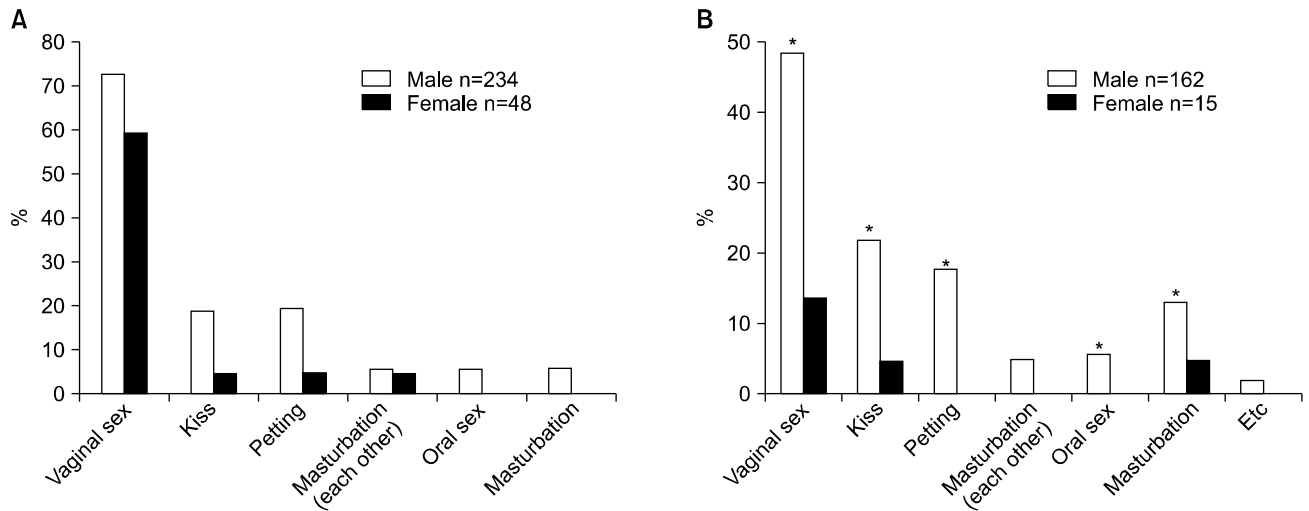


Fig. 3. The pattern of sexual behavior to want and experience. (A) Want. (B) Experience. \* $p < 0.05$  vs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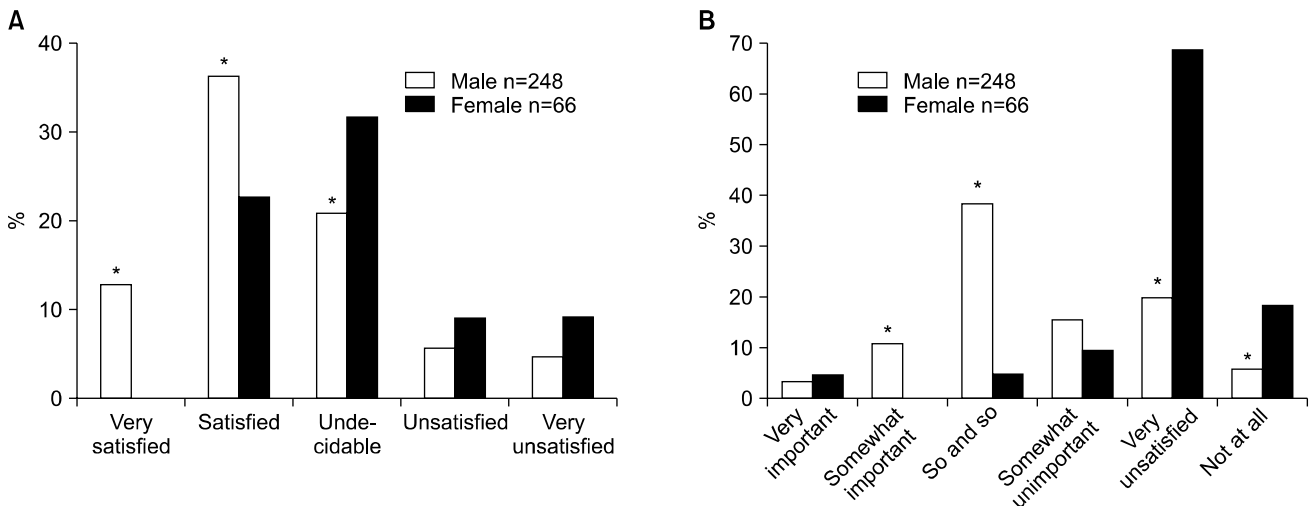


Fig. 4. Overall satisfaction about sexual life and relative importance of sexual life. (A) Overall satisfaction about sexual life. (B) Importance of sexual life. \* $p < 0.05$  vs female.

6) 성적 만족도: 성적 만족도는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으며 어느 정도 만족이 90례(36.3%) 및 15례(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가 52례(21.0%) 및 14례(31.8%), 약간 불만족이 34례(5.6%) 및 4례(9.1%), 매우 만족이 남녀 각각 32례(12.9%) 및 0례(0%)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12례(4.8%) 및 6례(9.1%)의 순이었다. 남녀 각각 49.2% 및 22.7%에서 성적으로 만족하여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20% 정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A). 성생활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으며 이중 매우 중요하다는 경우가 남녀 각각 26례(10.5%) 및 0례(0%),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120례(38.2%)

및 3례(4.5%), 그저 그렇다가 38례(15.3%) 및 6례(9.1%),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48례(19.6%) 및 45례(68.2%)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경우가 14례(5.6%) 및 12례(18.2%)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성생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Fig. 4B).

7)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에는 남성에서 248명(100%)이 답하였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78례(31.5%)를 제외하고 발기부전 86례(34.7%)가 가장 많았으며, 성욕 저하 38례(15.3%), 상대방의 문제 32례(12.9%), 성교 후 극심한 피로감 16례(6.5%), 극치감 소실 10례(4.0%), 성교시 고통 및 회음부 동통이 4례(1.6%), 성교시 호흡장애 및 빈맥 4례(1.6%)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4례(1.6%)의 순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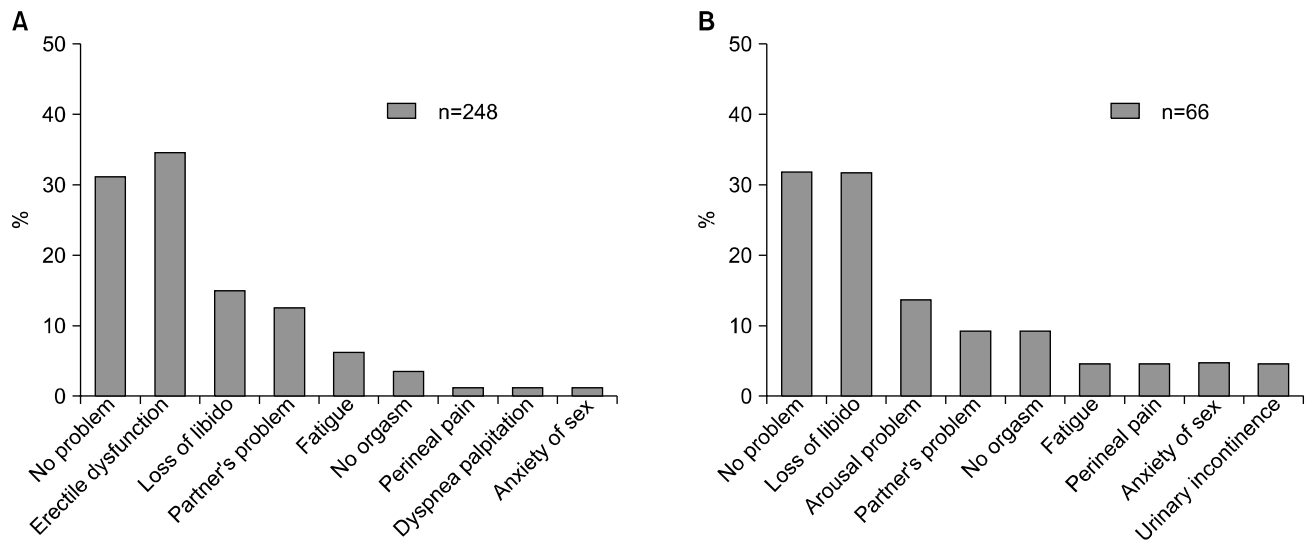


Fig. 5. Problems with sexual life. (A) Male, (B)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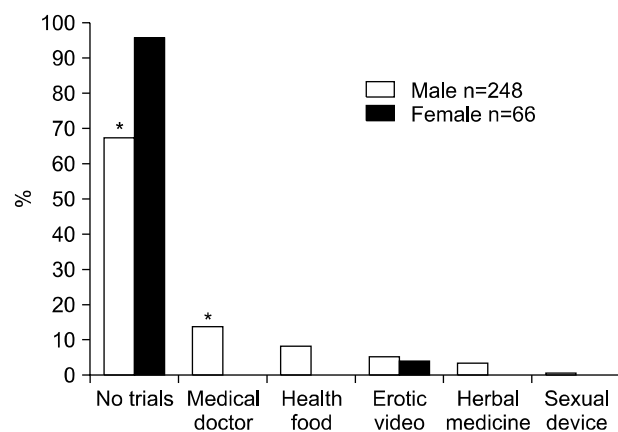


Fig. 6. How to solve the sexual problem. \*p &lt; 0.05 vs female.

로 나타났다(Fig. 5A). 여성에서는 66명(100%)이 답하였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21례(31.8%)를 제외하고 성욕저하 21례(31.8%), 흥분장애 9례(13.6%), 상대방의 문제 6례(9.1%), 극치감 소실 6례(9.1%), 성교시 회음부 동통 3례(4.5%), 성교 후 피로감 3례(4.5%),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3례(4.5%), 요실금 3례(4.5%) 순으로 나타났다(Fig. 5B).

**8) 성기능 장애의 해결:** 남녀 각각 248명(100%) 및 66명(100%)이 답하였다. 성기능 장애 해결을 위해 남녀 각각 166례(66.9%) 및 63례(95.5%)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해결방법으로는 전문의사의 진단 후 치료가 남녀 각각 34례(13.7%) 및 0례(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식품 22례(8.8%) 및 0례(0%), 성인영양물이 14례(5.6%) 및 3례(4.5%), 한약 10례(4.0%) 및 0례(0%), 성기구 2례(0.8%) 및 0례(0%) 순이었다(Fig. 6).

**9) 남녀간의 일치도:** 각 문항에서 여성과 남성의 일치도를 보인 문항은 일상생활의 만족도, 성행위 빈도, 성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 하고 싶었던 성행위, 경험한 성행위, 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성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항목에서는 남녀가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의 원인, 성상대자의 연령분포, 성적 활동성, 절정감을 느낀 성행위, 성행위 요구, 성생활의 비중, 성생활에서 문제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 찰

성행동 양식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개인에 있어서도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이 가해짐으로써 일생동안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특히, 노인에서의 성행동 양식은 사회적, 문화적 인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유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전신 건강 상태, 정신적 요소 및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sup>4,5</sup>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 배우자의 성적인 활동성에 따른 차이, 사망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부재는 노인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진료환경에서 성기능장애를 평가할 때 발기능으로 대표되는 성기능을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 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성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교의 빈도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함께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feiffer 등<sup>6</sup>은 46~50세의 남성에서 매주 성교의 경험이 95%에서 있었으나 66~71세에서는 28%로 감소하였고, Margiglio와 Donnelly<sup>7</sup>도 60세 이상의 부부에서 53%, 76세 이상의 부부에서는 24%가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Bretschneider와 McCoy<sup>8</sup>는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남성의 63%, 여성의 30%가 성생활을 유지하며, 72%의 남성과 64%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평균연령 이상의 고령에서도 성생활을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Diokno 등<sup>9</sup>은 결혼한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73.8%에서 성적으로 활동적이었으며 여성에서는 55.8%에서 활동적이었던 결과를 보고하여, 정상적인 성적 배우자를 가진 경우 성적 배우자를 가지지 않은 대상보다 성경험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50대 이상의 남녀 중 남성 33.1% 및 여성 13.6%만이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 달 간 성교가 없었다가 남성 33.9%, 여성 13.6% 및 1달에 1~2회가 남성 32.3% 및 여성 86.4%로서 성교의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성교 빈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의 시작 역시 대부분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생활을 중요시 하는 비율이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러 면에서 성적인 관심도와 활동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5년 발표된 Global Study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urs (GSSAB)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GSSAB 연구에서도 나이에 따라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sup>10</sup> 연령증가에 따른 성활동성 감소의 남녀차이는 노화와 동반질환의 증가에 의한 발기부전에 더불어 성상대자의 낮은 성관심도와 성활동도라는 신체외적인 요소가 더해져 중·노년층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악화 또는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34.7%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Ahn 등<sup>11</sup>이 40~79세의 한국 남성 1,5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IEF-5 17점 이하인 32.4%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발기부전이라고 생각한 경우인 13.4%에 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GSSAB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80세 미만 한국인 남성에서 성기능장애 중 발기부전은 18%, 성욕저하는 16%였으며 여성에서는 성욕저하가 17%, 흥분장애가 10%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남성의 성욕저하 15.3%, 여성의 성욕저하 31.8% 및 흥분장애 13.6%로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성기능장애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서 남성의 66.9% 및 여성의 95.5%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며 남성의 13.7%만이 전문의사의 진료를 찾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전히 성기능장애를 의학적 질환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과 의료진을 찾아 성기능장애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중·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녀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기능 장애의 빈도가 높아지고 성생활의 빈도가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남녀에서 모두 높은 빈도로 여전히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고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와 동반질환의 유무 등을 포함한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고령화 사회와 노년층의 의학적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중·노년층의 성인식, 성생활 및 성활동성에 대해 다양한 지역·문화·경제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알 림

본 연구는 2009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References

1. EnCyber & EnCyber.com. <http://www.encyber.com>
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2006. <http://www.nso.go.kr>
3. Park SW, Park HJ, Park NC. A community based study of the sexual life in male and female of more than 50 years at Busan metropolitan city. *J Busan Med Assoc* 2004;40:12-7.
4. Moreira ED Jr, Kim SC, Glasser D. Sexual activity, prevalence of sexual problems, and associated help-seeking patterns in men and women aged 40-80 years in Korea: data from the Global Study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GSSAB). *J Sex Med* 2006;3:201-11.
5. Bacon CG, Mittleman MA, Kawachi I, Giovannucci E, Glasser DB, Rimm EB. Sexual function in men older than 50 years of age: results from the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 *Ann Intern Med* 2003; 139:161-8.
6. Pfeiffer E, Verwoerd A, Wang HS. Sexual behavior in aged men and

- women. *Arch Gen Psychiatry* 1968;19:753-8.
7. Margiglio W, Donnelly D. Sexual relations in later life: a national study of married persons. *J Gerontol* 1991;46:S338-44.
  8. Bretschneider JG, McCoy NL. Sexual interest and behavior in health 80 to 102 year olds. *Arch Sex Behav* 1988;17:109-29.
  9. Diokno AC, Brown MB, Herzog AR. Sexual function in the elderly. *Arch Intern Med* 1990;150:197-200.
  10. Nicolosi A, Glasser DB, Kim SC, Marumo K, Laumann EO; GSSAB Investigators' Group. Sexual behaviour and dysfunction and help-seeking patterns in adults aged 40-80 years in the urban population of Asian countries. *BJU Int* 2005;95:609-14.
  11. Ahn TY, Park JK, Lee SW, Hong JH, Park NC, Kim JJ, et al.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erectile dysfunction in Korean men: results of an epidemiological study. *J Sex Med* 2007;4:1269-76.

## Appendix, PNUH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xual Function Inventory

지난 3개월 동안의 생활을 기초로 하여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1. 당신은 일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어느 정도 만족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1.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적 문제 (2) 자식문제 (3) 성생활 문제 (4) 직장 문제 (5) 건강문제 (6) 기타

2. 당신은 성상대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성상대자가 있는 경우에, 성상대자의 연령은? 만 ( )세

3. 당신은 지난 3개월 동안 성적으로 활동적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예 ( ), 아니오( )

4.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성행위를 하였습니까?

- (1) 전혀 없다 (2) 한달에 1~2번 (3) 1주일에 한번 정도 (4) 1주일에 1~2번 (5) 1주일에 3번 이상 (6) 기타

4-1. 성행위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1) 나 자신의 건강 문제(감염, 질병 등)로 인해  
(2) 성상대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3)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4)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5) 떨어져 살기 때문에  
(6) 기타 (직접 기술하십시오 )

5. 다음 성행위들 중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개 표시 가능)

- (1) 키스 ( ) (2) 혼자만의 자위행위 ( ) (3) 상대와 서로 자위행위 ( ) (4) 전신애무, 전희 ( )  
(5) 구강성교 ( ) (6) 질삽입의 성교 ( ) (7) 항문성교 ( )

6. 다음 성행위들 중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한 것은? (여러 개 표시 가능)

- (1) 키스 ( ) (2) 혼자만의 자위행위 ( ) (3) 상대와 서로 자위행위 ( ) (4) 전신애무, 전희 ( )  
(5) 구강성교 ( ) (6) 질삽입의 성교 ( ) (7) 항문성교 ( )

7.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경험한 다음의 성행위들로 절정감(오르가즘)을 느꼈습니까? (여러 개 표시 가능)

- (1) 성적인 꿈이나 환상 ( ) (2) 키스 ( ) (3) 혼자만의 자위행위 ( ) (4) 상대와 서로 자위행위 ( )  
(5) 전신애무, 전희 ( ) (6) 구강성교 ( ) (7) 질삽입의 성교 ( ) (8) 항문성교 ( )

8.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성행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자위 행위 (2) 구강 성교 (3) 항문 성교 (4) 경험한 적이 없다



9. 지난 한달 동안 성행위를 하면서 상대와 당신 중 누가 먼저 성행위를 시작하였습니까?

- (1) 성행위를 안했다 (2) 보통 내가 먼저 시작 (3) 서로 같다 (4) 보통 상대자가 먼저 시작

10. 당신은 성상대자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 (1) 성상대자가 없다 (2)매우 만족한다 (3) 어느 정도 만족한다 (4) 그저 그렇다 (5) 약간 불만족한다  
(6) 매우 불만족한다

11.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의 성생활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12. 당신의 성생활에 문제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느끼시는 점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2) 나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 (3) 성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4) 성욕은 있으나 발기(\*홍분)가 잘 되지 않는다  
(5) 극치감(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6) 성교시 고회이나 회음부 동통이 있다  
(7) 성교후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8) 성교시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9) 성관계를 갖는 것이 두렵다

(그 이유는:

\*;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13.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성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 보았습니까?

- (1) 예로 비디오를 이용한다  
(2) 성생활 기구를 이용한다 : 그러면 어떤 기구를 사용해 보았습니까? ( )  
(3) 건강 식품을 이용한다 : 그러면 어떤 식품을 사용해 보았습니까? ( )  
(4)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한약을 복용한다  
(5) 전문 의사의 진단 후 치료 :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 보았습니까? ( )  
(6)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